

“공공건축물 완공 과정 시민이 알아야 해요”

‘말하는 건축:시티홀’ 정재은 감독 광주극장서 관객과의 대화

우여곡절 준공 서울 신청사 통해 행정 문제 등 제기

“공공건축물은 사회 문화적 자산의 척도… 관심 필요”

지난해 문을 연 서울시청 신청사는 당초 2009년 완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화재 심의가 부결되고 설계가 변경되는 우여곡절 끝에 2012년에야 문을 열 수 있었다. 3000억원이 투입된 서울시 신청사는 올해 건축전문가 100명이 선정한 ‘광복 이후 최악의 건축물’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시 공업체는 서울시를 상대로 공사 지연 때문에 발생한 사업비 586억원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진행중이다.

고(故) 정기용 건축가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말하는 건축가’의 정재은 감독이 이 논란 많은 서울 신청사를 소재로 한 다큐 ‘말하는 건축:시티홀’을 내놓았다. 영화는 신청사가 탄생하는 과정의 비리나 문제점을 고발하지 않는다. 대신 공공 건축물이 완공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상황, 발주처인 서울시를 비롯해 시공, 설계업체 등의 이해가 얽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광주의 경우 당초 완공 기한을 3년 가까이 넘기는 등 슬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공사를 진행중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례가 있어 남의 일 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광주 시 등 행정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물에 대한 문제점도 아울러 생각하게 된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꼭 관망해야 할 영화다.

지난 18일 광주건축가협회와 나무심는 건축인, 광주극장이 함께 마련한 관객과의 대화 행사에 정재은 감독이 참석했다. 정 감독은 “정기용 선생님을 촬영할 때 항상 공공건축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자주 하셔서 이번 작품도 짝게 됐다”고 말했다.

“지금 전국에서 많은 공공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 이 거대한 공공 건축물들이 왜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지 시민들이 이 정도는 생각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화를 만들었다. 모두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건물이다. 건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확산시키자는 마음도 있었다.”

정 감독이 서울 시청사를 다큐 대상으로 삼은 건 우선 호기심이었다. 완공 1년전부터 촬영을 시작했고 8개월의 편집 기간을 거쳐 400시간 분량의 필름을 106분으로 압축했다.

“처음 시작한 것은 호기심과 디자인의 문제였다. 알다시피 신청사의 외관이 무척

독특하다. 누가 어떤 의도로 저런 디자인을 했을까가 궁금했다. 서울시 한복판에 세워지는 상징적 건물이라는 점에서도 시민들의 관심이 다른 어떤 공공건물 보다 많았다. 또 구청사와 신청사의 어우러짐 문제나 근대 건축물과 주변과의 관계 등 건물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문제의식도 많았다.”

정 감독은 지방에서 관객과의 대화를 할 때 “왜 우리가 서울시청이 지어지는 과정을 보아야하는가”라는 질문을 받는다고 했다.

“서울시청에서 벌어진 이야기는 조금씩 다르더라도 어느 지역에서든지 다 일어나고 있는 문제다. 아시아문화전당도 유사할 거다. 공공 건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는 만큼 좋은 공공건축물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정 감독은 공공 건축물을 발주하는 행정기관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18일 광주극장에서 열린 ‘말하는 건축 : 시티홀’ 정재은 감독과의 대화에는 지역 건축가와 건축학도 등이 참여했다. <광주극장 제공>



논란이 된 서울시청의 모습.

“공공건축물은 한 사회의 문화적 자산의 척도다. 이런 건물을 짓는데 정치와 행정가의 의견에 좌지우지되면 안된다. 행정가와 정치인이 자기 임기 내에 성과를 보려고 하는 게 문제다. 공공 건축물을 발주한 정치가와 행정가는 떠나고 나면 그만이다. 늘 바라보고 이용하는 건 시민들이다. 건물을 완성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서울시 청사처럼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물이 나오는 건 무언 때문일까. 서울시의 상황이 이 정도라면 지방에서는 더 심할 거다.”

정 감독은 이 작품이 건축에 관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세상살이에 대한 이야기라고 고도 했다.

“시간과 돈에 쫓겨 살아가는 나와 우리의 자화상이 보이기도 했다. 한국 삶의 양식 말이다. 영화를 찍으면서 나의 삶, 현실에 대해 성찰하는 마음이 깊어지더라. 열심히 사는데 결과는 욕 먹는 것,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하게 됐다. 개인의 창조성, 견해, 생각이 담기지 않은 문화는 의미가 없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개인의 선택한 의사를 존중했으면 좋겠다. 자기 중심을 지키면서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내 영혼의 빈터’

잊혀졌지만 그곳에 있었던

한희원 서른번째 개인전, 내달 4일까지 갤러리 D

서양화가 한희원씨는 붓으로 시를 쓴다. 이른 새벽 공기를 마시며 양림동 자락에 앉아 펜으로 시를 쓰기도 하고 이 같은 시상들을 그림을 통해 옮기기도 한다. 그의 작품들이 우리의 감성을 건드리며 그림 속으로 끌어당기는 이유도 그가 미술과 문학의 경계를 오가며 그리운 장소와 추억에 대한 사유를 작품으로 승화시키기 때문이다.

한희원씨가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광주 갤러리D에서 ‘그림 속에 시가 떠돌다’라는 주제로 서른 번째 개인전을 연다. 그가 광주에서 5년 만에 선보이는 개인전이다.

한씨는 이번 전시에서 미술과 문학의 경계를 섬세하게 옮겨낸 서정성이 짙은 100여 크기의 대작을 비롯해 모두 3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 특유의 감성적인 시상들이 드러나는 작품들이다.

그의 작품 속에는 화려한 도시의 모습이 아닌 희미해진 시골의 모습이 담겨있다. 끝없이 이어질 듯한 좁은 골목길, 적막한 정미소, 아무도 찾지 않는 폐주차장 그리고 눈에 익은 낯은 이발소는 이제는 잊혀지고 있지만 한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흔적이 묻어있다.

화면에 담긴 대상의 형태는 극히 제한되고 단조롭지만 두텁게 우러나는 독특한 마티에르기법(물감의 겹칠과 광택 등으로 재질감을 돋보이게 하는 기법)과 작가 특유의 풍부한 색깔은 세월과 추억, 삶의 무게를 한 겹씩 쌓아 올린 듯하다.

작품 ‘퇴락한 도시의 일기’는 현대인의 내면에 담겨 있는 쇠락한 영혼을 낡은 거리와 거친 벽을 통해 보여준다. 쓸쓸한 세월을 보여주는 거리와 벽을 스쳐듯 걷는 사람들은 현대인의 낡은 그림자의 모습처럼 표출된다. 그러나 그 차가운 바탕결속에는 희망을 찾는 사람들의 뜨거운 숨결이 스며있다.

“초린을 위하여”에서는 고즈넉한 골목길 담벼락에 기대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남성을 통해 고독과 절망 그리고 그리움을 함께 노래한다.

조선훈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한씨는 다수의 국내·외 교류전과 아트페어에 참가했으며 대동미술상, 원진미술상, 전남연극제 무대미술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는 굿모닝 양림축제 조직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개막식은 21일 오후 6시30분이다. 문의 062-222-801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나도 예술가’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 등 상주단체 발표회

‘11월, 어느 멋진 날의 몸짓.’

2013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박준희발레단’ ‘김미숙뿌리한국무용단’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이 22일 오후 6시 광주남구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시민참여 프로그램인 움직임교육·치유·감성프로젝트 ‘나도 예술가’ 발표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등을 통해 예술을 접한 시민들이 결과물을 선보이는 자리다.

‘조선대 무용과 발레’팀이 ‘가을맞이’라는 제목의 무용을 무대에 올리고, 동아여중과 동아여고 댄스팀이 각각 ‘Put your graffiti on me’ 등 다양한 댄스를 선보인다.

공연장상주단체 퍼블릭프로그램 ‘선생님~예술과 만나요!’에 참여했던 교사들은 ‘교사들의 움직임’이라는 제목으로 국악과 함께하는 리듬체조를, 퍼블릭프로그램 ‘찾아가는 춤으로 행복충전’에 참여했던 성빈여사 학생들과 대학생들은 ‘시크릿’, ‘에이핑크’, ‘틴탑’ 등 아이돌 가수들의 댄스를 무대에 올린다. 또 김덕희씨 등 11명이 참여하는 ‘음악즐넵기’와 이날 행사 출연진 전체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부르는 ‘다함께 사랑 넘치는 노래와 율동’도 준비해 있다.

이번 공연 안무 및 예술감독은 임지형·박준희·김미숙 조선대 교수가, 무대감독은 유길호씨가 맡았다. 문의 062-230-742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30일 역사탐방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백수인)과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대표 김병기)는 오는 30일 ‘고령·함양으로 떠나는 인문학 여행’이라는 주제로 ‘역사문화테마탐방’을 진행한다.

이번 탐방단은 영남 내륙에서 화려한 절기문화를 꽃피웠던 대가야의 흔적과 발자취를 따라가는 ‘신화여행’과 훈구파에 대한 영남사람의 기수 김일손, 정여창의 위패를 모신 ‘서원탐방’을 통해 15세기 후반 정치상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모집은 오는 26일까지다. 참가비는 2만원(입장료 등 제공)이다. 문의 062-234-2727.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1주년 KJB 국제보청기

www.kjhr.com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 **가구빌딩**

www.hong79.com

☎1899-0240

헤드기능 5개 코너소파 195만원

리콜라이너 2개 +헤드기능 3개

5인 이태리 무광대리석 식탁 195만원

앤틱식탁 15종류